

## 회 고 사(回顧辭)

- 협회 사옥을 마련하면서 -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 회장  
조 규 상

우리 협회가 창설된지 36년만에 새로운 건물을 갖게 되어 그간 도와주신 노동부관계 여러분과 협회를 이끌어 오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20여년간 한일 기술협력을 통하여 형제같이 도와준 일본 경도공장보건회 이누이 슈렌(乾修然) 명예소장님을 모시고 축하식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협회가 창립된 1963년은 우리가 5. 16을 겪고 경제개발을 막 시작한 때여서 서울시내에 현대식 건물이란 아직 없어 새로 지은 명동 성모병원이 대한뉴스에 한국발전상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노동부도 보건사회부 노동국시절로서 을지로입구에 가건물에 있었습니다.

1963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시행세칙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나와 사업장 보건관리자(의사) 직무교육이 처음 시작되었고,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도 처음으로 실시되던 해인데 이 때에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와 교육한 대학교수들이 모여 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을 얻을 곳이 없어 명동 가톨릭대학 의학부 기초학교실에 방 하나를 빌려 사무국직원 한명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협회승인은 다음 해 7월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가톨릭대학 의학부가 새 교사를 신축하여 종로 경운동으로 이사하게 되어 협회도 따라서 이전했는데 따로 방을 가질 곳이 없어서 2층 홀을 막아 사무실로 사용하고, 겨우 회장실을 하나 얻어서 최영태박사님의 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2년에 가톨릭의대는 강남 반포동으로 다시 새 교사를 지어 이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협회는 또 대학을 따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대에 신세진 세월은 21년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간 사무국만이 아니라 직무교육이나 세미나 등도 모두 대학강당 신세를 졌던 것입니다. 84년에 와서 비로소 협회는 독립되어 반포동 107번지 반포회관에 사무국을 차렸고, 3년후에 방배동 우진빌딩에 전세로 12년을 살다가 우리 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협회창립후 협회 각 지부는 연차적으로 그 지역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주관이 되

어 설립되었는데 모두다 집 없는 어려운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던중 86년에 와서 서울지부 건물을 매입하였고, 이어서 부산지부를 샀는데 91년에 충북지부와 그리고 작년엔 충남지부가 신축되어 개원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협회는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는 공익기관으로서, 선진국가에서는 국가사회기관에서 건물을 마련했는데, 우리는 사업에서 얻은 돈으로 기계도 사고 건물까지 마련하자니 참으로 허리띠를 이중삼중으로 졸라매는 어려운 살림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중에서도 70년도에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지원으로서 청개천시장을 위시한 전국 6개소에 근로복지위원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실비치료를 해 준 일과 71년 공업진흥청에서 마산자유수출공업단지에 건물을 얻어 지역사회를 위한 집단보건관리를 시작하여 오늘날 보건관리대행기관의 터전을 잡은 것은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살림은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웠으나, 가난은 우리에게 근면과 지혜를 깨우쳐 주었으며, 어려움은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설시부터 제가 일한 공이 있다고 하여 제 아호를 따서 건물의 이름을 혜산(慧山)빌딩이라고 명명한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까지의 협회발전은 임직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이고, 특히 오늘날 기억하여야 할 것은 큰 이념을 가지고 협회를 창립하신 초대회장 최영태(崔永泰)박사와 83년이후 어려운 협회살림을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훌륭하게 발전시킨 최병수(崔炳秀)부회장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딩이름을 처음에는 대산(大韓産業保健協會)이라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글자의 풀이가 좋지 않다 하여 혜산으로 하었다고 합니다. 혜(慧)자는 슬기로운 혜, 사리를 밝게 분별한다는 지혜의 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맡아보는 과학도로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며 최상으로 올리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혜자는 은혜(恩惠)의 혜자로도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여도 근로자를 사랑하는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를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의를 산출하는 혜산빌딩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1993년에 우리는 협회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 때는 ILO, WHO 국제기구의 책임자와 저명한 학자들도 초빙하여 학회도 가졌습니다. 참으로 경하스럽고 협회의 힘을 국내외로 보여주는 경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협회는 노사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수록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밀레니엄을 앞두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성의를 다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룩합시다.